# “인도불교, 한반도 직접 전래 가능했다”

## 김해 여여정사, 2월 25일 가야문화학술대회

한반도 불교 전래설 중 정설은 인도와 중국을 거쳐 불교가 들어왔다는 ‘북방전래설’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을 통해 불교가 전래됐다는 ‘남방전래설’도 있지만, 이에 대해 역사학계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불교가 해양을 통해 전래됐다는 ‘남방전래설’을 규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김해 여여정사(주지 도명)와 동명대 인도문화연구소(소장 장재진)는 2월 25일 여여정사에서 ‘가야문화의 원형탐색과 콘텐츠화, 해양불교 전파의 모형탐색’을 주제로 제2회 가야문화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반도 불교 남방전래설의 의미와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내외 불교학자들의 논문들이 발표됐다.

고다비리샤 미슈라 인도 마드라스대 교수는 ‘인도에서 한반도까지 불교 전래 경로’ 발제를 통해 “이미 삼국의 승려가 4세기에 불법을 배우기 위해 인도로 왔던 기록이 있는 만큼 인도서 한반도로 불교가 직접 전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야의 쌍어문이 타밀나두 주 빤디아 왕국의 상징인 점과 한국과 인도어의 유사점을 든 미슈라 교수는 “서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고대항해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며 “이를 감안하면 인도에서 인도차이나, 중국, 가야로 이어지는 불교 해상 전래 루트도 가능하고 존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방전래설 의미 · 가능성 모색**
**불교 전래 문화교류사 관점서**
**‘종합문화체’로 이해 · 연구돼야**
**6가야 분리, 전래사 접근 필요**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가야불교 남방전래설의 재검토’ 발제에서 가야불교를 크게 아가야와 금관가야, 대가야로 구분해서 ‘남방전래설’을 고찰해야 함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가야는 여섯 가야의 연합체이지만,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아라가야와 금관가야, 대가야로 나누어 보는 것이 맞다”면서 “아라가야는 고구려 불교의 영향을, 대가야는 백제 불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두 가야국의 불교는 대승불교였다”고 설명했다.



김해 여여정사와 동명대 인도문화연구소는 2월 25일 여여정사에서 ‘가야문화의 원형탐색과 콘텐츠화, 해양불교 전파의 모형탐색’를 주제로 제2회 가야문화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반면, 금관가야는 허왕후와의 출자나 아유타국, 파사석탑 등의 기록을 통해 남방불교와 해양불교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고 교수의 주장이다.

고 교수는 “금관가야 8대 질지왕이 시조와 시조모인 수로왕과 허왕후를 기념해 세운 최초 사찰과 왕후사는 불교의 수용 문제에 있어 해양세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면서 “금관가야 불교는 남방불교와 해양불교의 접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거룡 선문대 교수는 ‘한국불교남래설 고찰’ 발제를 통해 불교 전래는 문화교류사적 입장에서 고찰해야 함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허왕후 이전에 가야에 불교가 전래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 교수는 인도의 밧뜨(S.R Bhatt)교수의 “가야불교는 기원전 1세기 이전에 해상경로를 통해 들어왔다”는 주장을 인용하며 민간 차원의 전래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밧뜨 교수는 “인도의 어떤 왕도 자신의 딸을 일면식도 없는 왕과 결혼시킨 적이 없다. 수로왕과 허왕후가 결혼한 것은 두 나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의 사회 · 문화적 교류가 있기에 가능했다”면서 불교가 이전에 가야에 전래됐음을 주장한바 있다.

이 교수는 ‘가야’는 남인도와 네팔서 사용되는 드라비다어로 ‘물고기’를 의미하고, 수로왕의 이름은 통치자와 영웅을 의미하는 범어 ‘슈라(sura)’의 음차임을 언급하며, 두 국가의 교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허왕후가 들어오던 시기 가야지역에 인도문화의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두 왕국 사이에 긴밀한 접촉, 개인적 교우관계, 사회 교류가 있었다는 것은 밧뜨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는 일종의 문화현상이기 때문에 전래과정에 대해서는 문화교류사적 입장서 고찰돼야 한다”며 “불교를 하나의 ‘종교적 종합문화체’로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불교에서 설화는 어떻게 수용됐나

## 불교학연구회 · 동악어문학회 3월 11일 춘계 학술대회

동아시아 불교에서 설화는 어떻게 수용됐는지를 알아보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과 동악어문학회(회장 윤재웅)는 3월 11일 오전 9시 동국대 학림관 111호에서 ‘동아시아 불교와 설화적 상상력’을 주제로 춘계 논문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이경순(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1930년대 중반 불교계의 〈금강산〉잡지 발간과 의의 △김명미 · 윤재웅(동국대)의 서정주 문학의 지귀설화 수용 양상 △김승호(동국대)의 ‘불연처(佛緣處) 만들기의 설화적 맥락과 의미-〈고기(古記)〉 설화를 중심으로’ △최귀목(고려대)의 ‘신본불적(神本佛迹)의 상상력’ △청완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의 ‘〈삼보감응요약록(三寶感應要略錄)〉의 동아시아 전승과 지장신앙’ 등이 주제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 3월 해빙기 맞아 문화재 안전진단

3월 해빙기를 맞아 중요 문화재에 대한 안전진단이 시행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해빙기를 맞아 지정문화재 1,901개소와 4대궁 · 종묘 · 왕릉을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문화재 분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2월 27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2~4월경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 진단하는 예방활동으로 이번 진단 대상에는 국보 ·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 도지정문화재도 포함돼 있다.

문화재청이 실시하는 주된 진단내용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물의 작동기능 상태 △봄철 해빙기의 영향으로 인한 문화재 변형 여부 △문화재 안전경비원의 근무상황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시급성과 내용 등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보수 · 보강 등이 시급한 사항은 예산을 지원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해빙기 문화재 안전진단을 통해 드러난 위험 사항은 즉각 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청주 비중리 석조삼존상 보물된다

## 문화재청, 지정예고… “삼국시대 조각, 의의 커”

삼국시대에 조성된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 및 석조여래입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등 6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은 하나의 돌에 광배와 삼존, 대좌를 모두 환조(丸彫)에 가깝게 표현했다. 현재 왼쪽 협시 보살상은 찾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여래와 협시보살이 하나의 광배를 배경으로 구성된 삼존 형식은 삼국 시대 6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에 크게 유행했다. 특히, 대좌의 양쪽 측면에서 두 마리의 사자가 호위하고 있는 사자좌(獅子座)는 삼국 시대 이른 시기에 유행했던 대좌 형식으로서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이 여래삼존상은 6세기 중엽 삼국의 경계지역이었던 청주에서 전해오는 가장 귀중한 초기 삼국 시대 불상으로서 그 역사적 · 미술사적 의의가 크다”면서 “함께 전해오는 석조여래입상 역시 같은 시기에 제작된 삼국 시대 조각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 ‘최석정 초상 및 함’, ‘신여량 상가교서’, ‘신여량 밀부유서’ 등도 보물 지정예고됐다.


보물 지정 예고된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한편,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 비구 · 비구니 장로 오도송 ‘한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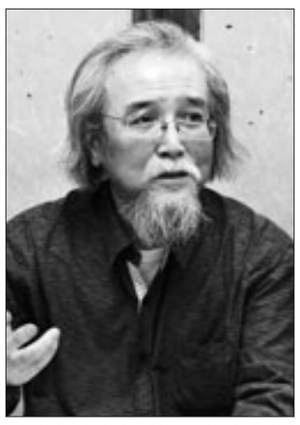
## 전재성 빠알리성전協 회장 테라가타 · 테리가타 완역해

**세계 최초로 완역, 성과 커**
**불제자들 깨달음 노래 ‘눈길’**

선승이 자신의 깨달은 바를 시로 읊은 것은 오도송(悟道頌)이라고 한다. 부처님 재세 당시 제자들도 자신의 깨달음을 시(詩)로 표현했다. 이를 모아 놓은 것이 〈테라가타〉와 〈테리가타〉이다.

〈테라가타〉와 〈테리가타〉는 남방 상좌부 경전으로 우리에게는 〈장로게경〉과 〈장로니게경〉으로 알려져 있다. 두 경전 모두 부처님 재세 당시 비구 · 비구니 장로들의 출가 · 수행 과정, 깨달음이 게송으로 남아있다.

〈테라가타〉와 〈테리가타〉는 1889년 처음으로 독일의 노이만에 의해 간략한 주석과 더불어 번역됐고, 1913년 영국 리스 데이비즈 부인에 의해 간략한 현생인연담과 함께 발간됐다. 이후 영국과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번역이 나왔지만, 완역되지는 못했다.


전재성 회장이 2월 28일 간담회에서 〈테라가타〉 · 〈테리가타〉 완역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은 지난해 12월 〈테라가타-장로게경〉을 완역한데 이어, 최근 〈테리가타-장로니게경〉을 완역 · 발간했다. 〈테라가타〉에만 비구 장로 260명의 오도송 1291수, 〈테리가타〉에는 비구니 장로 102명이 읊은 522수의 오도송이 담겼다.

이번에 내놓은 〈테리가타〉는 비구니 장로들의 출가수행기이면서 깨달음의 오도송이기도 하다. 수많은 불교 경전 가운데서도 비구니들의 노래만을 담은 경전은 극히 드물다. B.C 3세기경 메가스테네스는 저서 〈인도지〉에서 “인도에는 여성철학자들이 있어 남성과 난해한 것을 당당히 논의한다”고 기술돼 있다. 여기에 나온 여성철학자들이 〈테리가타〉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매일 3백개의 창으로 몸이 찔리고, 1백년을 살해되도, 괴로움이 종식된다면 그것이 낫다’고 고뇌하면서도 난관을 벗어나는 상황을 ‘희열과 행복이 나의 몸에 스며들었다. 어둠의 다발이 부서졌다’고 노래한다.

전 회장은 “부처님의 최초 제자들인 비구와 비구니들이 어떤 계기로 출가를 결심하고 어떤 고난을 겪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경전”이라며 “〈테리가타〉는 2500년 전 당시 여성들의 현실을 알 수 있다는 데도 중요한 문헌”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 범패 · 작법무 · 의식과정 학인모집

▼ 아래와 같이 제 15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기초범패 – 소리과정** (1년 과정 – 매주 목요일) : 기본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오후 2시 ~ 3시 10분)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 등 전 과정

■ **기초작법 – 무용과정** (1년 과정 – 매주 목요일)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오후 3시 30분 ~ 5시)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 **전문과정** (매주 수요일) : 기초과정 수료자(동 자격을 갖춘 분) – 영산재 전 과정 소리 및
(오후 2시 ~ 4시) 작법무(바라무 · 나비무), 화청(회심곡)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전문과정 –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기초과정 –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7년 2월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인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349-6)
전화 : 032)529-6708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2호
FAX : 032)529-6709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 |
|---|---|
| 기본과정 (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 (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신행과정 (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 (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3월 9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